

디지털 기술 이용해 희귀도서 복간하는 세계 출판계

뛰어난 감식안과 기획력으로 수익성 확보해...
출판사 및 인접 업체간 협력 시스템도 갖춰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는 절판도서를 되살리는 일이 활발하다. 개별 출판사가 자사의 절판도서를 다시 펴내거나 절판된 책의 내용을 새롭게 인쇄·제본해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희귀본을 디지털 기술로 복제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작업도 성업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살려야 할 책을 판별하는 감식안과 기획력에 따라서 재출간 도서도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가 있다. 이미 꺼진 불이라도 작은 불씨가 남아 다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불조심 표어다. 출판에서도 꺼진 불을 다시 불 필요가 있다. 출판사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해야겠지만, 오래 전에 출간돼 사실상 절판 상태인 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출판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오래 될수록 그 가치와 의미가 오히려 각별해지는 전통을 발굴, 보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출판기획이라는 것도 반드시 새로운 아이টে만을 발굴하는 일은 아니다. 출판기획은 완전히 꺼진 것으로 간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책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찾아 큰불로 살려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살린 불로 정신을 따뜻하게 데우는 독자들이 많은 경우, 출판사의 보람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현재 절판도서 살리기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신 제책기술로 소량생산 비용 줄여

우선 개별 출판사 차원에서 자사의 절판 도서를 다시 펴내는 일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岩波書店)의 경우,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독자의 복간(復刊)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1913년에 창업한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이고 보니, 출간도서의 중수가 엄청난 것은 물론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도 적지 않다. 이와나미 중고도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이와나미 도서만을 수집하는 사람, 심지어 이와나미 문고만을 수집하는 사람마저 있을 정도다.

물론 이와나미가 단순히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절판된 책을 복간하는 것은 아니다. 제책 설비의 발달로 소량 생산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소량 주문에 응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문출판에 가까운 셈이다. 주로 학술도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복간 주문이 이어지면서, 이런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절판된 책을 복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새롭게 인쇄·제본해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세계적인 학술 자료 및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업체 'Bell & Howell Information and Learning'이 한 예다. 참고로 이 회사는 'Bell & Howell'사가 1985년에 UMI를 인수·합병해 출범시켰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15만권의 절판본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목록을 검색·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고종의 사진을 처음 촬영해 우리나라에 사진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의

1886년 저서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on, the land and the morning calm)》, 뉴욕에서 출간된 김 산의 《아리랑(Song of Arirang,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의 1941년판,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1911년 저작 《한국, 은둔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 등이 그것이다.

전문 심사집단이 복간여부 결정해

특정 주제 혹은 분야의 절판도서만을 집중적으로 재출간하는 형태도 있다. 프랑스학 관련 절판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네바 소재 슬트킨(Slatkine)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문학, 문헌학, 언어학, 프랑스 역사 분야의 정기간행물, 논문, 단행본을 주문에 따라 새롭게 인쇄·제책해서 제공한다. 특히 오래 전 출간된 다양한 불어 사전과 17~19세기 프랑스 정기간행물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에이어 컴퍼니(Ayer Company Publishers)를 들지 않을 수 없다. 1만5천권을 준비해놓고 있으니 그리 많은 중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 출판사의 특징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원히 책의 형태로 남아 독자와 만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책'들을 재출간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에이어 컴퍼니의 책은 도서 시장에서 사실상 신간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여러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재출간 사업을 진

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절판된 책의 복간을 통해 독자들의 읽을 권리를 찾아준다는 취지로, 일본의 8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물 복권(書物復權) 프로젝트'가 그 예다. 참여 출판사는 도쿄(東京)대학 출판회, 호세이(法政)대학 출판국, 미즈스 출판사, 기노쿠니야, 미라이샤(未來社), 게이소 출판사(勤草書房), 하쿠수이샤(白水社), 이와나미 등이다. 각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복간 대상 도서와 독자들이 신청한 도서를 종합해 복간도서를 결정하고, 독자들의 구입 예약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 출판사들은 복간 대상 도서를 동시에 발매하며, 협력 서점들의 협조로 각 서점 도서 진열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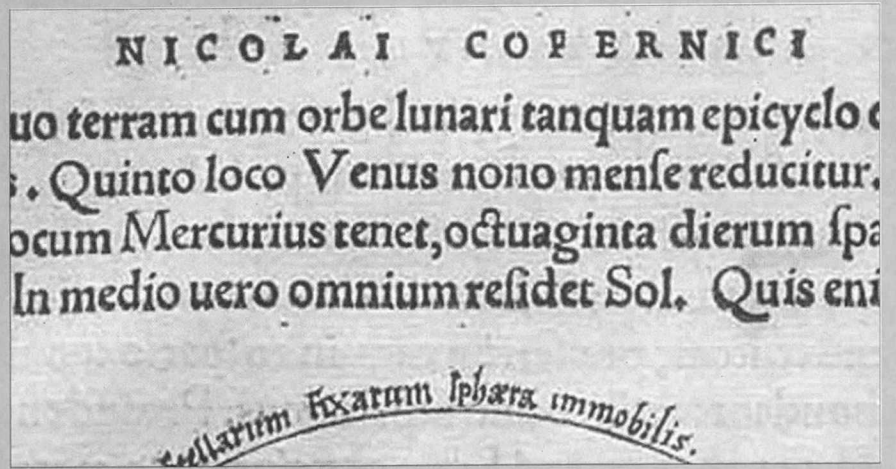
디지털 형태로 책내용 보관해주는 업체도 있어

절판된 책을 복간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책의 잠재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플리카 북스(Replica Books) 같은 곳도 있다. 이곳은 독자가 아니라 출판사를 주요 고객으로 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소량 주문에 응하기 위해 대량의 책을 새로 찍어내기 어렵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보고자 하지만,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레플리카 북스는 출판사의 주문에 따라 책의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소량 주문에 응해 빠른 시간 안에 인쇄·제책해낸다. 인쇄·제책 공정과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레플리카 북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책 내용이 저장돼 있는 한, 절판이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고서를 CD-롬 형태로 복간하는 옥타보(Octavo) 역시 특기할 만하다. 옥타보의 특징은 오래된 희귀본·초판본의 표지와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고해상도의 사진 파일로 만들어 CD-롬에 담아낸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당 도서 주제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자세한 해제를 첨부한다. 도서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 초판본 고서의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열람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옥타보가 제작한 CD-롬을 통하면 희귀본을 실제로 앞에 두고 읽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해상도가 무척 높기 때문에, 활자의 미세한 번짐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옥타보 작업의 중요한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되게 마련인 고서를 디지털 형태로나마 사실상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희귀본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권리인데, 옥타보는 그런 기관 혹은 개인 소장 희귀본의 디지털화 작업을 도와줌으로써 사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 의회도서관, 뉴욕 공공 도서관 등도 옥타보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1543년 뉘렘베르크에서 출간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를 담은 CD-롬은 40달러, 런



절판도서를 살리기 위한 해외출판계의 다양한 움직임에 출판계의 주목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은 희귀본·초판본 도서를 디지털화해 CD-롬으로 제작·판매하는 업체 옥타보에서 출간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의 일부본.

던에서 1644년에 출간된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를 담은 것은 2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도 셰익스피어, 초서, 아이작 뉴턴, 베살리우스, 갈릴레오, 윌리엄 블레이크 등의 저작 가운데 희귀본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절판도서를 되살리는 일은 최신의 인쇄·제책 기술을 배경으로, 소량 주문, 소량 생산, 사실상 주문 출판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형식의 출판이 점차 수익성을 갖춰나가고 있다. 되살려내야 할 책을 판별하는 감식안과 기획력에 따라서, 재출간 도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절판도서의 재출간은 학술 자료의 온전한 정리, 보전 및 유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전적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로마의 문법학자이자 작가인 테렌티우스 마우루스는 '책은 그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Habent sua fata libelli)고 말했다. 비록 '그 나름'의 운명이라고는 해도, 절판이라는 운명은 책의 물리적 소멸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가치의 윤리학보다는 효율의 경제학이, 생각의 깊이보다는 생각의 속도, 역사의 무게보다는 순간의 가벼움을 중시하는 풍토라면, 가혹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되살아날 수 있는 책의 숫자도 그만큼 적을 것이다. ●